

2015 개정 가정과의 핵심개념 ‘발달과 관계’ - 중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임정하* · 전미경**1)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Development’ and ‘Relations’, as the Core Concepts of Home Economics in 2015 Revised Middle School Curriculum in Korea

Lim, JungHa* · Jun, Mi-Kyung**1)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Seoul)**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view was to introduce and examine ‘development’ and ‘relations’ as the core concepts of Home Economics in 2015 revised middle school curriculum in Korea. The 2009 and 2015 proclam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home economics curriculum and 26 published middle school textbooks were review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components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relations’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promoting four key competencies (i.e. the self-management competency, the communication competency, the aesthetic sensibility competency, the community competency) of 2015 revision. Also, four of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i.e. character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safety and health education, human right education) in 2015 revision could be effectively discussed with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relations’. Second, when teaching and learning of the core concept, human ‘development’, continuous dynamic aspects of life-span development, the connectedness of different domains of development, systematic approach of various concepts in development, specificity and empirical evidence of information and variability of developmental patterns in adolescence should be considered. Third, when teaching and learning of the core concept, family ‘relations’, family trait such as generational relations, gender relations, role relations and power rela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addition, exclusively focusing on normal family ideology or image of middle-class family and lecture-centered instruction methods should be changed for

1) 교신저자: Jun, Mi Kyung, 30, Pildong-ro-1-gil, Jung-gu, Seoul, Donggu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2-2260-3889, Fax: 02-2265-1170, E-mail: mkjun@dongguk.edu

2) 이 글은,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한 2015 가정과 교육과정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한국가정교육학회 2015 추계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부족한 부분을 짚어준 두 토론자에게 감사한다.

students to achieve the competencies relevant to family relations. The future directions for applying core concepts, 'development' and 'relations' in classroom will be discussed.

Key words: 2015 개정 교육과정(2015 Revised Middle School Curriculum), 핵심개념(Core Concepts), 발달(human Development), 관계(Family Relations)

I. 들어가며

기술·가정 교과는 제1차(1954년~55년)부터 제7차(1997년) 교육과정, 이후 2007 개정과 2009 개정을 거쳐 2015 개정까지 총 10번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통합학문·실천학문의 성격을 강화시켰다. 가정과(기술·가정 교과)의 가정 영역)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며 가정생활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자립적인 생활능력과 실천적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중학교 가정생활 분야의 경우는 청소년기 학습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며 가정생활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자립적인 생활능력과 실천적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고자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a).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이전 교육과정과 다른 강조점이나 지향점이 있기 마련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총론의 개발 방향은 첫째,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간상과 창의 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의 제시, 둘째, 모든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강화, 셋째, 학습내용의 적정화 및 교수학습·평가방법 개선을 통한 교실 수업의 혁신에 있다. 무엇보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핵심개념'과 '핵심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먼저 '핵심개념'의 도입 취지 배경에는 교과를 통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 내용과 실생활에 활용가능하고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교과학습 내용 구성의 필요성이 있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개념'을 통해 학습 요소의 상호 관

련성을 드러내고자 하며, 교사가 핵심개념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각 내용요소를 가르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핵심역량'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핵심개념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a; 이광우, 2015).

한편 2015 개정 기술·가정 교과와 가정은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관리와 자립'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첫 번째 영역인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세부 목표는 자신의 발달과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배려와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위한 관계형성능력과 실천적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또 이 영역은 '발달'과 '관계'라는 두 가지 핵심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핵심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학습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핵심개념 '발달' 부분에는 청소년기 발달특징,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청소년기 또래 문화,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해결방안, 건강한 동성 및 이성 친구 관계, 청소년기 성적 발달, 건강한 성 가치관 학습요소가 있으며, 핵심개념 '관계' 부분에는 가족 구조와 기능 변화, 가족구성원의 역할, 다양한 가족관계의 유형과 특징,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의 민주적인 가족관계,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 효과적인 의사소통,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이 주된 학습요소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5a). 이상의 학습요소에서 핵심개념 '발달'과 '관계'는 각각 청소년기의 발달과 가족관계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학습요소를 바탕으로 두고 '발달'과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핵심개념과 핵심역량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그 전개에 대한 이해는 수업 현장에서 학습목표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 교과의 핵심개념과 핵심역량이 2015

개정 총론의 목표 구현에 어떤 중요성과 의미를 갖는지, 핵심개념의 교수학습과 교재개발 시 고려해야 할 점이나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통합교과이자 실천교과인 기술·가정 교과와 성격과 실현방향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핵심개념 ‘발달’과 ‘관계’가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중학교 수업현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중요성과 범교과 학습주제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핵심개념 ‘발달’과 ‘관계’가 수업현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다루고자 한다. 핵심개념의 수업현장 적용은 핵심개념별 내용 및 학습요소, 교수학습 방법과 교재 개발 시 고려해야 할 부분 및 추후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핵심개념 ‘발달’과 ‘관계’의 차시별 교육목표 성취를 도울 뿐 아니라 이 핵심개념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총론 방향에서 어떻게 수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이 있는 13종의 중학교 『기술·가정 1』과 『기술·가정 2』 교과서를 문헌 분석하였다. 그 절차는 먼저 2015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해 핵심개념과 핵심역량의 논리적 구조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전 교육과정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신규교육과정의 이해 뒤, 핵심개념 ‘발달’과 ‘관계’의 내용요소가 있는 2009 개정 기술·가정교과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교수학습 및 교재개발시의 고려사항과 추후과제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별 내용요소의 양적 분석을 목적에 두지 않았다. 대신 인간발달과 관계 내 핵심내용은 2015 개정 총론적 차원의 핵심역량과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 또 가정교과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개념 ‘발달’과 ‘관계’의 논리적 구조 및 전개는 타당한지, 내용 전달에서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에 중점 둔 연구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및 범교과 학습주제와 가정 교과의 ‘인간발달 및 가족’영역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2015 개정 가정과의 핵심개념 ‘발달’의 학습요소, 교수학습 시 고려해야 할 점과 추후 과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2015 개정 가정과의 핵심개념 ‘관계’의 학습요소, 교수학습 시 고려해야 할 점과 추후 과제는 무엇인가?

II. 2015 개정 가정과의 핵심개념 ‘발달’ 및 ‘관계’의 이해

1.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가정 교과의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관련성

1) 2015 핵심역량과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 학습요소의 관련성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은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이다.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핵심개념인 ‘발달’ 및 ‘관계’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이들 핵심역량의 주체인 학습자, 즉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새 교육과정에서 표방하는 6개의 핵심역량을 기르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과 성찰의 기회를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인간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달하는데, 이러한 변화양상은 발달단계별로 고유한 특징을 보이기도 하고 개인별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다시 말해, 핵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훈련이나 경험은 발달단계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 자신의 발달과 특성, 자신의 환경을 잘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보다 필요하고 잘 맞는 훈련과 경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발달’의 학습요소는 6개의 핵심역량 중 자기관리 역량을 기르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소양

을 다루고 있다. 자기관리 역량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5b). ‘발달’의 학습요소에서 청소년기 자신의 발달특징에 대한 이해는 이 시기 경험하기 쉬운 질풍노도의 혼동을 보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숙고하도록 돕는다. ‘발달’의 학습요소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체감 형성에 대한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자기관리 역량 발달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즉 청소년기 발달특징 및 자아존중감과 정체감에 대한 학습은 자신의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만 몰두하여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자기중심적 사고나 태도를 보이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보다 폭넓은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이 시기의 혼란이 의미 있는 탐색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 시기에 수행해야 할 과업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이후의 삶과 진로 결정에 있어 자기주도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둘째, ‘발달’과 ‘관계’의 학습요소는 6개의 핵심역량 중 의사소통 역량 및 심리적 감성 역량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의사소통 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심리적 감성 역량은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b). ‘발달’의 학습요소에서 청소년기 또래 문화 및 친구 관계에 대한 내용은 청소년에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훈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서와 인지, 행동 등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또 청소년들은 발달적으로 다른 단계에 있는, 즉 부모와 같은 성인에게는 개방적이기 보다 폐쇄적인 반면 자신과 유사한 발달적 특성을 보이는 또래, 특히 단짝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개방적이며, 이 시기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질과 빈도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Rice & Dolgin, 2008). 따라서 청소년기 또래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건강한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깨닫고 실천한다면 이후 보다 확장된 사회적 관계와 다양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의사소통 역량 및 공감적 이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발달’의 학습요소에서 건전한 성 가치관에 대한 내용도 의사소통 역량 및 심리적 감성 역량 증진과 관련된다. 청

소년기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인 성적 발달특징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성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또래 간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개방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계’의 학습요소 중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는 ‘의사소통’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단원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직접적 방법의 습득과 훈련이 가능하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은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던 고전적 내용으로, 잘 말하기와 잘 듣기의 의미와 실천은 이전 교육과정부터 꾸준히 강조되었다. 오늘날 분자적 삶을 살기 쉬운 현대 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할 때,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은 가족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자 친밀감, 심리적 만족감, 행복과 같은 정서적 욕구 충족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이다.

셋째, ‘관계’ 영역의 학습은 6개의 핵심역량 중 공동체 역량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 역량은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말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b).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관계’ 영역의 중심인 가족은 세대관계, 성별관계, 권력관계, 역할관계를 특징으로 한 집단이며, 이러한 가족 고유의 속성을 생각한다면 가족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가족관계는 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개인의 생애주기 및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관계이기에, 성공적 가족생활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는 공동체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핵심개념인 ‘발달’과 ‘관계’에서 다루는 학습요소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청소년 학습자 개인의 자기관리 역량을 증진시켜 자기주도적 삶을 위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데 근간이 되며, 나아가 보다 확장된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 능력을 기르고,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2015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와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관련성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합, 조정하여 10가지 범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이 포함된다. 따라서 가정교과의 학습이나 교과서 개발 시에도 이러한 범교과 학습주제가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거나 반영될 전망이다.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핵심개념인 ‘발달’에 대하여 교수학습하는 과정에서는 10가지 범교과 학습주제 중 ‘인성교육’, ‘안전·건강교육’, ‘인권교육’ 주제가 적절히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대한 내용에서는 긍정적인 자아정체감과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의 특성 및 그로인해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청소년 학습자 스스로 비교, 분석해 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성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탐색하도록 도우며 성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은 예방적 차원에서 개인 수준의 안전·건강교육과 밀접히 관련된다. 또래 간 갈등이나 친구와의 문제에 대한 토론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역할극 등을 활용해 훈련하는 것은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함양하게 함으로써 인권교육과 연관시킬 수 있다. 즉, 범교과 학습주제 중 개인의 심리적 발달과 관련된 인성교육, 신체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건강교육, 타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교육은 핵심개념 ‘발달’을 교수학습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핵심개념 ‘관계’의 경우에는 범교과 학습주제 중 특히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다문화교육’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 먼저 ‘관계’의 내용요소 중 하나인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단원은 건강한 가족의 정의 및 특징, 건강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학습자가 실천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생활의 궁극적 지향점의 하나로 건강 가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인성교육’이 학습자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인성교육’은 ‘행복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교과서 내용요소와 행복교육과의 관련성을 심도 있

게 다룬 연구물(Lee & Yoo, 2014a; 2014b)에서도 ‘인성교육’의 내용요소 및 접근 방법에서 우리교과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역시 가정교과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용요소이다. 가정교과에서 다문화사회는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특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알 수 있으며 다른 문화권의 개인과 가족의 삶을 살펴보고 문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

가정교과에서 ‘발달’과 ‘관계’ 이외의 핵심영역 역시 범교과 학습주제와 직·간접의 관계를 갖지만 가정교과의 강점은 범교과 학습주제를 다루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가정교과의 진정한 강점은 이러한 내용요소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는 가정교과의 성격이 통합교과, 실천교과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2. 핵심개념 ‘발달’의 이해

핵심개념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간의 특성을 나타낸다. 인간발달은 한마디로 인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발달’에서 다루는 내용은 청소년들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간 자신의 발달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건강하고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를 지원하고자 하는 ‘발달’의 학습요소는 1990년대 초반의 제6차 가정 교과서에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에 청소년기 발달의 특성을 구체화하여 포함시킨 것을 시작으로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후 제7차 개정 기술·가정 교과서, 2007 개정과 2009 개정 기술·가정 교과서에 청소년의 발달특성이 계속 포함되었고, 이들 개정을 거치면서 청소년기 성적 발달특성과 친구관계에 대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발달’의 학습요소가 과거나 현재 모두의 시점에서 청소년 학습자의 핵심역량을 기르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

핵심개념 ‘발달’이 갖는 이러한 필요성은 2015 개정 가정교과

Table 1. Contents and achievement criteria for the core concept ‘development’ of home economics in 2015 revised curriculum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성취기준	학습요소
자신의 발달특징에 대한 이해와 자아정체감 형성은 건강하고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된다.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청소년기의 발달특징과 자신의 발달특징을 연결 지어 이해한다.	청소년기 발달특징,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청소년기의 성과 친구관계	청소년기 또래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청소년의 성적 발달특징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성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한다.	청소년기 또래 문화,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해결 방안, 건강한 동성 및 이성 친구 관계 청소년기 성적 발달, 건강한 성 가치관

과 전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정교과의 6개 핵심개념은 발달, 관계, 생활문화, 안전, 관리, 생애설계이다. 이들 중 첫 번째 핵심개념인 ‘발달’은 이어지는 5개 핵심개념에서 다루는 내용과 성취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 학습자 자신의 변화와 특성을 다루게 된다. 따라서 모든 행위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탐색과 이해는 이어지는 핵심개념에서 다루는 역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 번째 핵심개념인 ‘생활문화’에서 다루는 의식주 생활 수행의 실천 역량을 갖추는 데는 청소년기의 전반적 영양과 식행동, 옷차림에 대한 지식과 가치, 판단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각각의 개인차를 반영한 계획 및 문제해결능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과 계획, 문제해결행동 등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에게 자신에 대한 탐색과 이해가 충분하다면 보다 자기주도적이며 효율적인 의식주 생활 역량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2015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핵심개념 ‘발달’의 내용 및 학습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교수학습 방법 및 교재 개발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점을 논의하며, 핵심개념 ‘발달’과 관련된 추후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핵심개념 ‘발달’의 내용 및 학습 요소

2015 개정 가정교과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에서 핵심개념 ‘발달’과 관련된 일반화된 지식과 내용요소, 학습요소 및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발달’의 내용요소를 크게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과 ‘청소년기의 성과 친구관계’로 구분한 것은 2009 개정의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가정생활 영역에서 ‘청소년의 이해’ 부분에 ‘청소년의 발달’과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로 구분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해당 영역에 포함된 구체적 내용요소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상위 명칭과 제시 체계는 보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이해’는 매우 일반적 수준의 제목으로 구체적 정보가 결여된 표현인데 반해,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발달특성을 주로 다루므로 ‘발달’이라는 핵심개념 하에 구체적 내용요소 두 가지, 즉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과 ‘청

Table 2. Contents on human development of home economics : Revised curriculum at 2009 vs. 2015 version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	주요 내용	내용 체계 (내용요소)	주요 내용 (학습요소)
○ 청소년의 이해 • 청소년의 발달 • 청소년의 성과 친구관계	• 청소년기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 사회적 발달특성,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특성, 건전한 성 가치관, 동성 및 이성 친구관계	○ 핵심개념 ‘발달’ •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 청소년기의 성과 친구관계	• 청소년기 발달특징,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 청소년기 또래 문화,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해결 방안, 건강한 동성 및 이성 친구 관계 • 청소년기 성적 발달, 건강한 성 가치관

소년기의 성과 친구관계'로 잘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Table 2> 참조).

핵심개념 '발달'의 내용 요소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학습요소들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내용에는 청소년기 발달특징,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이 포함되었다.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은 신체, 인지, 정서·사회 영역의 발달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신체 발달 부분의 경우 제2의 성장급등기와 2차 성징과 관련된 신체 변화가 주로 다루어진다. 청소년기 인지 발달 부분에서는 보다 확장된 사고 능력 및 정신적 정보 처리 과정이 주를 이루고, 도덕적 판단에 중점을 둔 도덕성 발달을 함께 다루기도 하며, 최근에는 두뇌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지적 특성이 언급되기도 한다. 청소년기 정서·사회적 발달 부분에서는 주로 자기이해와 자아정체감 발달, 가족 및 또래 관계, 정서표현 및 조절 문제 등이 다루어진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은 개념적으로 볼 때 사회적 발달특징의 하위 내용이 된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발달은 이 시기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이후 자기주도적 태도와 의사결정, 진로 발달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아에 대한 존중감과 정체감 형성을 별도의 학습요소로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청소년기의 성과 친구관계 내용에는 청소년기 또래 문화,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해결 방안, 건강한 동성 및 이성 친구 관계, 청소년기 성적 발달, 건강한 성 가치관이 포함되었다. 이 부분의 성취기준에 따라 이들 학습요소를 또래 문화 및 관계에 대한 것과 청소년기 성적 발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래 문화와 관계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보통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 중 또래관계에서는 또래 동조, 집단 수용과 인기, 친구관계의 우정, 이성교제 등에 대해 다룬다. 청소년들은 또래 맥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유능성과 리더십을 연습하고, 추후 보다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단짝 친구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의 인지,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즉 또래 및 친구 관계의 경험과 상호작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이후의 사회적 적응 및 성공과 밀접히 관련된다.

청소년기 성적 발달의 경우, 신체 발달의 일환으로 생물학적 생식기관의 성숙, 성 행동과 건강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고, 이를 확장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성적 발달과 관련된 성 가치관과 행동 등을 다룬다. 청소년들은 생물학적 생식 기관의 성숙과 함께 자신들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성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점차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의 성적 발달특징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건전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학습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2015 개정 가정과 핵심개념 '발달'에 해당하는 내용요소와 학습요소들은 청소년기 발달단계에서 현저히 나타나는 각 영역의 고유한 특성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자신과 자신의 변화에 대해 잘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또래 문화 및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자신과 타인을 위한 바람직한 성 가치관과 행동을 획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 핵심개념 '발달'의 교수학습 시 고려해야 할 점

핵심개념 '발달' 부분의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은 다양하다. 청소년기 발달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 정보를 전달하거나 학습자가 파악하도록 지원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태를 고찰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상태를 숙고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도록 지원하고 종합적으로 산출된 정보를 이용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소년기 친구관계에 대한 내용의 경우, 실제 발생하는 문제들을 선정해 학급이나 소집단 단위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역할극을 활용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이나 교재개발 시에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기본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학습자가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유한 실천적 문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핵심개념 '발달' 부분에 해당되는 교수학습 방법을 계획할 때 혹은 새로운 교재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은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다. 인간의 전 생애 발달에서 청소년기의 변화가 현저하고 이 시기 경험이 발달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고 이 시기의 변화나 그로인한 결과가 평생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변화의 속도가 달라질 뿐 청소년기 이후에도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일례로,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 중 하나인 자아정체감 형성은 이전 단계에 비해 인지적으로 성숙된 이 시기 즈음에 시작된다 것이 청소년기에 정체감 형성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소년기 올바른 정체감의 형성은 단기간 혹은 한번에 완수될 수 있는 일시적 과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Erikson이 처음 제안한 정체감 형성은 대안 탐색과 역할 헌신을 통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Adams, Gulotta, & Montemayor, 1992). 이는 일생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자기반성의 지속적 과정이다(Baumeister, 1991). 정체감을 형성한 후, 다시 유예 상태가 되어 재탐색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유실에 빠지기도 한다. 따라서 지나치게 청소년기 자체의 발달특성과 과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러한 특성과 과제, 그 발달 결과를 전 생애발달의 일부분으로, 발달의 긴 연속선상에서 보는 안목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ㅅ 출판사의 기술·가정 교과서에서는 청소년 발달 단원의 도입부에 전 생애발달에서 청소년기가 차지하는 부분과 이 시기의 과업, 이 시기의 노

력이 가져올 결과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학습자 스스로 이러한 안목을 기울 수 있도록 안내한 바람직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핵심개념 ‘발달’ 부분의 내용을 제시할 때 개념 간 위계와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학습자들이 전체와 부분, 상위와 하위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달과정을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과정으로 구분한다(Santrock, 2012). 따라서 청소년기의 발달특징도 이들 각 영역별 특징으로 세분화될 수 있고,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친구관계, 성적 발달 등은 모두 이들 각 영역의 하위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자아정체감이나 친구관계는 청소년기의 사회성 영역의 발달특징에, 성적 발달은 신체 영역의 발달특징에 포함된다. 2009 개정 교과서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개념들의 위계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고, 학습요소별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단원과 내용이 전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 <Table 3>의 예시 1의 경우, 청소년 발달 단원의 하위단원은 ‘청소년기의 발달특성’과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이다. 하지만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교재 본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청소년기 자아정체성이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특성의 하나라는 것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로 제시되어 있고, 하위단원의 소개부분에도 이러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앞서 제시된 개념

Table 3. Examples of contents on adolescent development in textbooks (2009 revised curriculum)

예시 1 (ㄷ 출판사)	예시 2 (ㅈ 출판사)
1. 청소년의 발달 1) 청소년기의 발달특성 (1) 신체 발달 (2) 지적 발달 (3) 정서·사회적 발달 2)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 (1) 자아존중감 (2) 긍정적 자아정체성	1. 청소년의 발달 1) 청소년기의 신체 발달 (1) 성장 급등 (2) 2차 성징 2) 청소년기의 사고 발달 (1) 청소년기 지적 발달 (2) 자기중심성 (3) 도덕성 발달 3) 청소년기의 정서적·사회적 발달 (1) 정서 발달 (2) 사회성 발달 ① 사회성 발달 ② 성 역할의 발달 (3) 자아 정체감

1) 이 글은 특정 교과서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며, 인용된 교과서의 내용은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기술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기에 출처를 출판사의 머리글자로 표기하고자 한다.

과 이어지는 개념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시 2의 경우, 청소년의 발달을 크게 신체, 사고, 정서·사회적 영역으로 적절히 구분하였으나, 상위 제목과 하위 제목이 동일하거나(예: 청소년기 사고 발달 = 청소년기 지적 발달; 사회성 발달 = 사회성 발달) 위계가 다른 정보들이 같은 수준의 하위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2. 청소년기의 사고발달에서 (2) 자기중심성은 (1) 청소년기 지적 발달특성의 지극히 일부분 중 하나임). 따라서 학습자들이 각각 나열된 개념들을 이해한다하더라도 이들 간의 위계나 구조,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셋째, 지나치게 일반적인 정보는 피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교수자의 강의나 교재의 내용이 피상적이거나 너무 일반적인 진술들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구체적 사실 근거나 추가설명 없이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표현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낮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 특히 정서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 친구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별다른 정보가 없는 일반적인 수준의 진술문으로만 구성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의 정서 상태는 학업이나 사회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ㄱ 출판사)의 경우 학업이나 사회적응에 정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 정서 중 어떤 정서 상태가 그러한지, 왜 그러한지 등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었다. 혹은 “청소년기에는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진다.”(ㄴ 출판사)는 식의 표현은 왜 특히 청소년기에 그러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직접적 근거가 없다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보가 된다. 또 다른 예로,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무조건 참기보다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또 등산, 운동, 악기 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ㄷ 출판사) 식의 진술도 피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서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인지 이해하는 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넷째, 경험적(empirical) 연구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문제를 만들어 내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올바른 판단을 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재 집필자의 경우 제공된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교수자도 이러한 점을 주의 깊게 살펴 최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잘못 제시된

정보는 학습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학습자들이 산출한 해결책도 쓸모없게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ㄱ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자아중심적 사고를 정서 발달의 특징으로 분류한 것이나 대다수 출판사의 교과서들에서 정서를 ‘어떤 상황에 처해 자극을 받았을 때 느끼게 되는 기쁨, 슬픔, 사랑, 분노 등을 느끼게 되는 마음의 작용이나 감정 상태’로 정의하는 것과 같이 지나치게 좁은 의미로 규정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수학습이나 교재에서 청소년의 발달특징을 다룰 때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속한 중간 정도의 특징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속한 범위를 정상이나 보통으로 규정한다면, 그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에 대해 편견을 만들 수 있다. 다원화되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려할 때, 개인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개인차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교재의 경우, 청소년의 발달 특징에 관한 내용에서 대부분 신체발달 부분의 성장 속도 개인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개인의 능력이나 선호, 문제해결방식, 사고방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고 그름, 좋음과 나쁨을 구분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수용되고 존중되어야 할 개인의 차이, 사회 내 다양한 개인의 특성이 있음을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핵심개념 '발달'과 추후 과제

추후 핵심개념 '발달' 부분에 해당되는 교수학습 방법을 계획할 때 혹은 새로운 교재를 개발할 때 반영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측면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현저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이 시기의 발달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사회성 발달의 측면에서 유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또래 청소년들이나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청소년인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청소년인 또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아동기부터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온 부모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청소년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는 그 이전 시기인 아동기의 관계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와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청소년 자녀들은 보다 수평적 관계를 원하고 심리적 독립을 갈망하게 되는데, 이러

한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 청소년기 부모와의 갈등은 또래관계에서의 갈등만큼이나 빈번하고, 경우에 따라 심각한 갈등이 가출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에게 자기 자신의 발달특성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는 중년기에 이른 부모의 발달특성에 대해 고찰해보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두뇌과학 연구결과, 핵심 뇌 구조의 성숙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전 수년간은 아동기 동안 뇌의 발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았지만(Strough, 2003),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청소년기를 거쳐 20대에 이르러서야 수많은 핵심 뇌 구조가 성숙한다는 것이 밝혀졌다(Casey, Giedd, & Thomas, 2000; Giedd et al., 1999). 두뇌에 대한 연구는 각 영역의 발달특성을 설명하는 데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성인들에 비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뇌에서 정서를 관장하는 편도체 부분이 계획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 부분보다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이다(Rice & Dolgin, 2008). 이 시기의 충동적 행동이나 지나친 감정적 표현이 그저 급격한 신체적 변화로 정서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계획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 부분이 성인처럼 성숙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특성을 제시할 때 구체적 근거나 과학적 기제에 대한 설명이 수반된다면 보다 양질의 문제해결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기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 영역의 발달 중 그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정서 역량을 들 수 있다. 정서는 단순히 마음의 상태나 느낌이 아니다. 정서는 인지적, 생리학적, 행동적 요소들이 수반되는 감정 상태로 볼 수 있다(Carlson & Hatfield, 1992).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며 조절하는 능력이 사회적 적응과 성공에 인지 능력 이상으로 기여한다는 점은 Goleman(1995)과 같은 연구자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청소년기의 정서적 불안정 상태는 단순히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생리학적, 인지적, 행동적 변화가 수반되는 복잡한 상태이다. 이러한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을 획득하는 데는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 발달 영역에서 과학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서 역량

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은 아동기를 넘어 청소년기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 사회 내 인종이나 민족성 등의 측면에서 다양성이 증가하고 세계가 정보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인간과 문화의 다양성을 접하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들은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다문화적 특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양문화적(bi-cultural)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가정 교과에서 적절히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핵심개념 ‘관계’의 이해

2015 개정 핵심개념의 하나인 ‘관계’의 학습요소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의 ‘관계’란 ‘가족관계’를 의미한다. 가족관계가 그 밖의 관계와 다른 것은 가족이라는 집단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가족관계는 친구관계나 이웃관계와 달리 비자발적 선택, 영속적인 관계, 관계 철회의 어려움 등의 특성을 갖는다. 동시에 가족은 세대와 성이 다른 가족구성원의 일상이 전개되는 장이기에 가족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성취하는 것은 ‘헌신’, ‘배려’, ‘존중’, ‘지지’ 등과 같은 덕목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이나 건설적인 갈등해결 방법과 같은 기술을 필요로 한다.

가정교과에서 가족관계 관련 학습요소는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다. 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가족분야의 내용변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Kim & Jun, 2012) 이 영역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크게 강조되어 의사소통, 갈등, 가족폭력, 가족스트레스는 중영역 차원에서 다루어지거나 중요한 학습요소로 교과서 지면을 채우고 있다. 이들 개념이 학습요소로 부각됨으로써, 가족생활의 성공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건설적인 갈등해결,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기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더불어 이러한 기술과 방법의 습득은 가족생활의 성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친구관계와 같은 사적 관계 및 직장관계와 같은 공적 관계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관계’의 학습요소, 교수학습 방법 및 교재 개발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

Table 4. Contents and achievement criteria for the core concept ‘relations’ of home economics in 2015 revised curriculum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성취기준	학습요소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의사소통으로 비롯되는 친밀한 가족관계는 가족의 건강함을 유지시킨다.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가정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이해하고, 건강 가정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탐색하여 실천한다.	가족 구조와 기능 변화, 가족구성원의 역할
	가족관계	다양한 가족관계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의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실천한다.	다양한 가족관계의 유형과 특징,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의 민주적인 가족관계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 효과적인 의사소통, 가족 간의 갈등해결 방안,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해결 방안을 탐색하여 실천한다.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 효과적인 의사소통,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

‘관계’ 요소와 관련된 추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핵심개념 ‘관계’의 내용 및 학습요소

2015 개정 가정교과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에서 핵심개념 ‘관계’와 관련된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관계’의 내용요소는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가정’, ‘가족관계’,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세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요소와 거의 차이가 없다(<Table 5> 참조). 사실 이상의 학습요소는 가족(가족관계)의 이해 및 건강한 가족생활의 실천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적 내용이기에, 여기에서는 학습요소가 무엇인가보다는 이것을 교과서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제 가족 집단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상의 학습요소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가족은 세대관계이다. 세대란 부모와 자녀를 연결하는 고리(유영주 외, 2004)로, 가족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세대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가족과 사회에서 세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출생코호트에 따른 가족가치관 및 가족행동의 차이에 있다. 출생코호트란 특정한 기간에 태어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이들은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비슷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란 세대 간 경험의 차이와 거기에서 비롯되는 가치관과 태도의 차이를 말하며, 이것은 위 또는 아래 세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낳는다.

부모와 자녀는 다른 세대 경험을 갖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에는 가족갈등이 유발되는 요소가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부모가 자신의 10~20대 경험에만 의지해 오늘을 살고 있는 자녀에게 다가갈 경우, 반대로 부모의 메시지를 부모가 살아온 세대 경험의 이해 없이 해석할 경우 부모-자녀 간 좋은 관계가 형성되

Table 5. Contents on family relations of home economics : Revised curriculum at 2009 vs. 2015 version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	주요 내용	내용체계 (내용요소)	주요 내용 (학습요소)
○ 가족의 이해 ·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가정 ·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가족의 개념, 형태, 기능, 가족생활주기, 가족가치관, 가족구성원 역할 변화, 양성평등 및 세대 간의 조화, 바람직한 의사소통 능력, 갈등해결, 건강가족	○ 핵심개념 ‘관계’ ·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가정 · 가족관계 ·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가족구조와 기능 변화, 가족구성원의 역할, 다양한 가족관계의 유형과 특징,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의 민주적인 가족관계,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 효과적인 의사소통, 가족 간의 갈등해결 방안

기 어렵다. 따라서 가정교과는 세대가 다른 가족구성원은 생애 주기가 다를 뿐 아니라 다른 세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세대 간 연대를 모색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은 성별(젠더)관계이다. 가족구성원에게는 성별에 따라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등의 가족지위가 부여되고 동시에 가족지위에 따른 가족역할이 기대된다. 젠더에 따라 가족경험은 전혀 다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 가사와 돌봄 노동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성별화된 노동이다.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성별화된 노동 압력은 개인의 기질, 선호, 능력, 상황 등이 무시되어 노동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가족자원의 분배에서 불공평함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개인과 가족을 둘러싼 급변하는 외부 환경 변화에 걸맞은 유연한 대처가 어렵기에 적응력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가족생활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가정교과는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성별 기준만을 가지고 역할과 관계를 규정짓는 것의 비효율성과 비합리성을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은 역할관계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사전적 의미를 가진 ‘역할’은 개인이 가진 지위와 연동되는 개념이다. 가족구성원은 세대와 성별에 따라 가족지위가 부여되며, 지위의 부여는 곧 역할 부여를 의미한다. 가정교과에서는 주로 역할, 역할공유, 역할전환, 역할과중을 중요한 학습요소로 삼고 있다. 향후에는 상황과 능력에 따라 남편이 가사노동을, 아내가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전환의 개념이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역할 간 갈등도 흥미 있게 다뤄 볼 주제라 하겠다.

더불어 가족역할의 학습요소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역할만족에 관한 것이다.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역할관계는 예컨대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녀라는 이차관계에서 발생하기에, 서로가 만족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점검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정수업에서의 가족 역할에 관한 내용요소는 가족생활만족이나 가족건강성의 증진으로 수렴할 수 있는 구조화된 전개가 필요하다.

넷째, 가족은 권력관계이다. 가족구성원의 일상이 전개되는 가족생활은 수많은 의사결정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가족생활에 필요한 일을 ‘누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의 의사결정 과정은 가족권력의 역동을 잘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의 가정교과서에서 가족권력은 의사소통, 역할, 갈등과 같은 학습요소와 달리 명시적으로 개념화하여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핵심적 권력과정인 의사결정이나 갈등은 가정교과의 주요한 학습요소였으며, 특히 가족갈등의 바람직한 해결이나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등의 학습요소에서 가족권력이 특정 가족원에게 치중되는 것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더불어 2015 개정에서는, 핵심개념 ‘관계’에서는 아니지만 ‘안전’ 영역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예방’을 내용요소 차원이 아닌 중단원 수준으로 상향하여 다룸으로써 권력(가족권력)의 파행적 결과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가족의 특성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오늘날 교육현장, 대중매체, 정부 등에서 ‘가족’의 중요함은 수없이 이야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가정교과는 가족의 의미나 중요성을 피상적으로 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계몽적 가족 이야기에 지친 학습자의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이다. 가정수업은 ‘실천적 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실제적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핵심개념 ‘관계’의 교수학습 시 고려해야 할 점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개념인 ‘관계’에서 강조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핵심은 학습자 가족경험에서의 실제적 변화를 통한 가족 건강성 증진에 있다. 이를 염두에 두어 교수학습 방법 및 교재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관계’ 영역의 학습요소는 지식위주의 전달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가족의 의미나 중요함, 가족관계의 소중함 등은 이미 많은 곳에서 이야기 하고 있기에 동일한 방식의 내용을 가정교과까지 보탬 이유가 없다. 오히려 가정교과는 ‘가족’을 가족 ‘답게’ 만들기 위해서 가족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실천방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2009 개정 가정교과서 대부분은 ‘가족생활주기’를 다루고 있는데, 대개 가족생활주기의 의미나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교과의 성격을 생각할 때 가족생활주기 학습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생활주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족생활에 대한 장기적·통합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규

범적 발달과 이에 따른 발달과업을 생각해봄으로써 과도한 가족스트레스나 잠재적 가족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우리 교과서의 성격에 부합할 뿐 아니라 강점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즉 가정교과는 학습요소의 지적 습득의 결과가 학습자에게 어떤 변화와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통념에 기대어 설명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모습은 계층이나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가족구성원의 가족경험 역시 차이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차에 비해 대중매체나 교육현장에서의 ‘가족 이야기’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것이 가족에 관한 통념에 기대어 진술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에서는 양성평등 가족 가치관이 자리 잡아 남편과 아내의 역할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는 설명(○ 출판사)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가족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할 만큼 가족은 개인의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출판사)와 같은 내용이 옳은 진술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은 건강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전통가정에서는 남녀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남성은 가정 밖에서 맡은 일을 수행하고, 여성은 가정의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었다”와 같은 내용(× 출판사)은 가정교과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설명이 바르게 위해서는 전통가정이 어느 시대의 가정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때의 전통가정이 산업화 이전 사회를 말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인데 왜냐하면 가사노동은 남녀 및 공/사의 구분에 의한 임금노동을 전제로 한 노동이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교과서에서 ‘전통’과 ‘전통가족’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시기를 가리키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현대의 대칭점으로 전통/전통가족을 차용하면서 이들 가족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가정교과가 통념에 기대어 가족을 진술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내용이 도덕적 혹은 계몽적 형태의 진술은 아닌지를 염두에 두면서 진술에 대한 객관적 내용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가족을 다루는 가정교과서는 교과서에 그려진 가족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나 중산층 중심의 가족상을 반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09 개정 가정교과는 ‘건강가정

(또는 건강한 가정)’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건강가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심과 사랑, 열린 대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요소와 함께 ‘경제적 안정과 안정적인 의식주’(○ 출판사)가 확보되어야 한다. 일련의 건강가정 요소에 대해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경제적 안정은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기초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가족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건강가정의 구현 방법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 활동이나 가족여행 가기와 같은 접근은 수업 현장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가족 여가는 가족 간 친밀감과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여가생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가정의 요소는 가족 여가가 아닌 질적 가족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맥락에서 △ 출판사의 경우 대단원의 시작으로 “Family”를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자칭 ‘가족=양부모 가족’이라는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가족’과 ‘가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가정교과는 우리교과의 가족 이야기가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치게 계몽적인, 가족과정(family process)을 고려하지 않는 피상적 진술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첫 출발은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진 학습자가 앉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3) 핵심개념 ‘관계’와 추후 과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관계’ 영역의 학습요소는 가족구조와 기능 변화, 가족구성원의 역할, 다양한 가족관계의 유형과 특징,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의 민주적인 가족관계,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정, 효과적인 의사소통, 가족 간의 갈등해결 방안이다. 이제 이러한 학습요소가 가정수업과 교과서에 전개될 때 유념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가정교과서의 ‘가족’은 ‘가족 = 핵가족’이라는 통념이나 혼인과 혈연 중심의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가족은 부부와 그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다양한 가족유형의 하나이다.

또 흔히 말하는 정상가족으로서의 핵가족은, 남편은 도구적 역할을 아내는 표현적 역할 수행하는 가족을 말한다. 산업화 초기에는 취업기혼여성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핵가족은 곧 전업주부가 있는 홀벌이 가족을 가리킨다 해도 큰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가족생활의 출현을 수용하고자 하는 가정교과서는 2007 개정 교과서부터 “(특정한) 가족유형만을 정상으로 보고 그 외의 가족유형은 비정상적으로 여기던 시각”의 변화를 추구하면서(2007 개정 ㄷ 교과서), 핵가족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2009 개정 교과서는 2007 개정 교과서에 비해 “가족이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집단”이라거나 “핵가족은 정서적으로 유대가 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족 형태이다”(2007 개정 ㄱ 출판사), 또는 “핵가족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기능적이고 가족구성원의 의견이 존중되는 가족 형태”라는 기술(2007 개정 ㄱ 출판사)은 크게 줄어들었다. 물론 2009 개정 교과서에서도 “가족이란 결혼한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혈연관계의 집단을 말한다”(ㄱ 출판사)와 같이 핵가족의 정의를 가족의 정의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의 교과서에서는 혼인과 혈연의 관계로만 가족을 정의하는 것에서 벗어나 “함께 사는지와 같은 외적 형태보다 가족 내에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고 있다(ㄷ 출판사).

둘째, 가정교과서는 ‘다양한 가족 = 약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흔히 가족의 다양성을,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핵가족 이외의 가족을 열거하는 식으로 설명하지만 이런 방식은 가족의 다양성이 가정교과서에 실려야 할 필요성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의 다양성이 논의되고 수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존의 가족정의가 특정 가족 이외의 가족들을 차별하는 논리로 사용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기존의 가족정의는 가족의 걸모습과 역할만을 강조할 뿐 가족의 속사정과 유대관계는 소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족관계는 고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미화하면서도 정작 일상생활 속에서는 가족관계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권리만을 요구하고 역할만을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다(Jun et al., 2007).

2009 개정 가정교과서에서 다양한 가족에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여 한부모가족, 무자녀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분거가족, 다문화가족, 독신가족, 입양가족 등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들 가족이 어려움 중심으로 기술 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재혼가족의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 출판사)는 주장은 맞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기술만 있는 경우 다양한 가족은 자칫 약한 가족 또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으로 비칠 수 있다. 또 무자녀가족에 대하여 “자녀를 낳지 않게 되는 사회구조적인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진술(○ 출판사)은 자발적 무자녀가족을 고려하지 못한 설명이다. 가정교과는 특정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타파를 위해 가족의 ‘형태’가 아닌 가족구조에서 비롯되는 가족생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교과서에서의 ‘가족’에 대한 설명은 가정교과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의 목적 중 하나는 시대의 변화를 담기 위함이므로, 가정교과서에서 시대적 문제 및 요구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사회적 요구에 따른 내용요소의 채택이 가정교과와 접목되었을 때에는, 이 내용요소의 설명이나 접근방식에서 우리교과의 교과적 성격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안전교육 등의 거시적이고 계몽적인 범교과 주제들은 가족생활에 주목한 생활밀착형의 미시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의 가정교과를 통해 학습자 일상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사회적 요구에 따른 내용요소의 채택을 통해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국가의 성장에 기여하는 가정교과의 성격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이것이 일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을 해야 한다’, ‘~이 중요하다’, ‘~이 필요하다’는 식의 접근이어서는 곤란하다. 청소년은 발달특성상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 단계로 전환하는 시기로, 계몽적·훈계적 어조로 옳고 그름을 논해서는 실천적 교과로서의 가정교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가정교과는 옳은 명제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명제의 실천을 통해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텔레비전, 신문, 공익 광고 등의 수많은 매체에서 가족이 소중한다는 주장이나 직면한 위기 극복에 가족이 큰 힘이 되었다는 감동적인 고백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는 가족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전하는데 그칠 뿐, 여기에서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가정교과에서의 ‘가족’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III. 나가며

지금까지 핵심개념 ‘(인간)발달’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실천 교과 성격 가진 보통 교과”로서의 가정교과(Ministry of Education, 2015a)의 특성을 잘 드러내기 위한 논의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가정교과는 가족생활에서 가족구성원의 유능함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능함을 문제해결능력이라고 할 때, 또 가족생활에서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핵심개념 발달과 관계의 학습요소는 청소년 학습자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원 습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가정교과는 핵심개념 ‘발달’을 통해 청소년 자신과 동시대를 공유할 친구 및 또래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자아정체감 및 건전한 성 가치관, 건설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적절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 발달의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 변화 ‘과정’에서는 흔히 긍정적 사건뿐 아니라 부정적 사건이나 갈등, 실수와 일시적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과 경험들을 학습의 기회로 삼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이후 발달의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가정교과에서는 ‘발달’의 학습요소를 다룰 때 피상적으로 그 중요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긴 연속적인 변화 ‘과정’의 관점에서 무엇 때문에 해당 요소가 중요한지, 어떠한 근거로 그러는지, 어떻게 하면 결과적으로 긍정적 발달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 분석적 정보를 지원하고, 이를 학습자 개인 수준의 발달과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청소년 학습자들이 자기 자신의 현 시점 발달 변화에만 지나치게 몰두하여 편향된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전 생애발달의 관점에서, 발달의 보다 큰 맥락적 관점에서 자신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핵심개념 ‘관계’의 학습요소는 자신의 익숙한 가족과 가족경험을 구조적, 기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가족·사회라는 연쇄적 고리는 오늘날 현대인과 현대사회의 준거틀로 작동하고 있기에 학교현장에서 ‘가족’을 어떻게 접근하는가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족은 대표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친밀함과 유대감의 정서적 경험의 기대되는 공간이며, 무엇보다 개인의 일차적 지지체계이다. 이러한 가족의 성격은 산업화 이래 변함없는 흐름이지만, ‘부양자로서의 아버지 + 주부인 어머니로 이루어진 양부모/이성에 가족 모델’이 사회변화와 무관하게 표준가족으로 제시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가정교과서의 주된 이슈라 하겠다. 더불어 최근에는 가족기능의 수행이 성별에 의한 혹은 한 명의 회생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 역시 변화하고 있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친밀감, 의사소통, 갈등, 권력과 같은 가족과정의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실천교과로서의 가정교과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핵심개념 ‘발달’과 ‘관계’의 전개에서 학습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청소년을 포함한 인간의 발달에 대한 이해,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생활에 대한 이해는 중학생 학습자 개인과 이들의 가족 모두에게 강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가정교과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 가정교과서
- 권영익 외 (2013). 중학교 기술·가정 1, 2. 성림출판사.
 - 김기수 외 (2013). 중학교 기술·가정 1, 2. 원교재사.
 - 김지숙 외 (2013). 중학교 기술·가정 1, 2. 비상교육.
 - 윤인경 외 (2011). 중학교 기술·가정 1, 2. 교학사.
 - 이상봉 외 (2013). 중학교 기술·가정 1, 2. 교문사.
 - 이상혁 외 (2013). 중학교 기술·가정 1, 2. 미래엔.
 - 이춘식 외 (2013). 중학교 기술·가정 1, 2. 천재교육.
 - 최유현 외 (2011). 중학교 기술·가정 1, 2. 천재교육.
 - 최유현 외 (2013). 중학교 기술·가정 1, 2. 천재교육.

- 정성봉 외 (2013). 중학교 기술·가정 1, 2. 교학사.
- 정철영 외 (2013). 중학교 기술·가정 1, 2. 두산동아.
- 조강영 외 (2013). 중학교 기술·가정 1, 2. 금성출판사.
- 채정현 외 (2013). 중학교 기술·가정 2. 삼양미디어.
- 한경혜 외 (2013). 중학교 기술·가정 2. 지학사.
- 한정동 외 (2011). 중학교 기술·가정 2. 삼화출판사.
- Kim, J. W., Jun, M. K., (2012). A Study on the Change of Family-related Contents in Home Economics by National Curriculum : Focus on the 1st~the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4)*, 19-37.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0). *A practical course(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Notification No.2011-361 of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 Ministry of Education (2015a). *A practical course(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Notification No.2015-74 of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15b). *2015 revised curriculum question and answer data.*
- Lee, Y. S., Yoo, S. J., (2014a). An Analysis on the Elements of Activating Happiness Education Suggested by Noddings Reflected in the Home Economics Part of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 Volume 1 of 2009 Curriculum Revision.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1)*. 31-53.
- Lee, Y. S., Yoo, S. J., (2014b). An Analysis on the Elements of Activating Happiness & Lee, 2012 Education Suggested by Noddings Reflected in the Home Economics Part of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 Volume 2 of 2009 Curriculum Revision.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3)*. 91-112.
- Jun, M. K., Noh, Y. J., Lee, J. K., Kim, J. Y., & Kim, J. Young., (2007). Presentations of Families in Elementary School Textbooks: Focused on Family Structur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2(2)*. 167-186.
- 유영주 외 (2004). 새로운 가족학. 신정.
- 이광우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핵심개념, 핵심역량.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11-29)
- Adams, G., Bullotta, T., & Montemayor, R. (Eds.). (1992).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Newbury Park, CA: Sage.
- Baumeister, R. F. (1991). Identity crisis. In R. M. Lerner, A. C. Petersen, & Brooks-Gunn (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Vol. 1. (pp. 518-521). New York: Garland.
- Carlson, J. G., & Hatfield, E. (1992). *Psychology of emotion*. Fort Worth: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Casey, B. J., Giedd, J. N., & Thomas, K. M. (2000). Structural and functional brain development and its relation to cognitive development. *Biological Psychology, 54*, 241-257.
- Giedd, J. M., Blumenthal, J., Jeffries, N. O., et al. (1999). Brain development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A longitudinal MRI study. *Nature Neuroscience, 2*, 861-863.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Rice, F. P., & Dolgin, K. G. (2008).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 12th ed. Pearson International Edition.
- Santrock, J. (2012). *Life-span development*. 14th ed. McGraw-Hill Education.
- Straugh, B. (2003). *The primal teen: What new discoveries about the teenage brain tell us about our kids*. New York: Doubleday.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핵심개념 ‘발달’과 ‘관계’가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중학교 수업현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9 개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과 13종의 중학교 기술·가정 1, 2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의 함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발달’에서는 범교과 학습주제 중 인성교육, 안전·건강교육, 인권교육을, ‘관계’에서는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다문화교육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업현장의 교수학습과 교재개발 시 고려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핵심개념 ‘발달’은 전생애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역동성, 신체, 인지, 사회정서발달의 연계성 및 주요개념들의 위계와 체계, 전달정보의 구체성, 경험적 연구결과에 근거한 과학적 정보의 활용, 청소년 발달의 다양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다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핵심개념 ‘관계’는 세대관계, 성별(젠더)관계, 역할관계, 권력관계라는 가족 집단의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지식 위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중산층 중심의 가족상을 중심의 설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개념 ‘발달’과 ‘관계’의 추후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16년 02월 29일, 논문심사일자: 2016년 03월 02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03월 28일